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19. 10.

| 산청 성심원

안녕하세요? 후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글을 통해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께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전하며, 산청 성심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경호강이, 뒤로는 지리산 자락이 포근히 감싸고 있는 성심원엔 나환우 어르신들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배척, 멸시를 피해 이곳에 정착한 나환자를 위해 1959년에 설립된 성심원은 올해로 60주년이 되었지요. 저희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수녀들은 주로 의무팀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며 상처치료, 병원 동행과 투약, 응급발생시 대처 등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1971년에 첫 공동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성심원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세월도 어느 덧 48년이 되었네요. 현재 이곳에는 95명의 나환우 어르신들과 중증 장애인들을 포함해 160여명의 이용자들이 생활 중이고, 여섯 명의 수녀들이 성심원 안의 공동체에서 하느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봄에 성심원 2층 요양원의 봉사자로 과견을 받아, 어르신과 장애



인 친구들의 말벗, 식사보조,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병의 후유증으로 눈이 멀어후 초점이 없는 시선, 손가락이 떨어져나간 몽당손, 일그그러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하느님 은총 체험이요, 기쁨과 감동의 연속입니다.

특히 가장 인상깊은

것은 신앙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 공동체 기도와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어르신들, 어눌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정성껏 기도와 미사를 드리시는 모습을 통해 수도자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늘 침상에서 몽당손으로 목주알을 돌리고 계신 할머니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세상의 아픈 이들, 은인들, 이곳의 신부님들과 수사님, 수녀들을 위한 기도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했더니, ‘나는 하느님 덕택으로 이만큼 많이 살았으니 바랄 것이 뭐가 있겠냐!’ 며, 봉사자를 위한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선망이 있으셔서 정신이 없는 중에도 할머니는 세상을 위한 기도로 자신의 온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곳의 어르신들 한분한분 만날 때면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삶의 여러 곡절들을 굽이굽이 넘어오신 향기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모임에 참석해 며칠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니 89세의 한 치매 어르신이 “엄마! 어디 갔다왔노? 난 엄마 없으면 못산다!” 하며, 며칠 째 “엄마, 엄마~~” 부르며 따라다니셔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발병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 살아오신 일생동안 엄마의 따뜻한 품이,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법정수련자 모임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천형(天刑)이라고도 불렀던 나병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해졌으니, 질병의 마지막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이 화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는 말씀과 함께, 세상과 세상의 가장 작고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손을 잡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하신 신부님의 말씀이 더욱 마음을 울리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돌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마음을 나누며 그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을 배우며, 작고 가난한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승현 미카엘라.fmm.

수녀원 소식

- 금경축, 은경축

2019년 9월 18일, 서울 가리봉 관구관에서 금경축을 맞이하신 김구지 막달레나 수녀님과 은경축을 맞이하신 임두주 테레사, 김영복 레지나, 설정옥 마리아, 김명숙 실비아 수녀님을 위한 미사가 있었습니다.

첫 수도복을 받고 수도여정 시작하여 50년, 25년의 시



간을 주님과 함께 걸으신 수녀님들, 그리고 로마 회의, 해외 선교지에 계신 최영아 아네스, 이선영 테레사, 이해영 마리아, 박은희 빅토리아 수녀님들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 입회

2019년 9월 17일, 이명혜 올리바, 홍정은 마리아 두 자매가 수도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첫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매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애쓰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시작하려는 두 자매의 여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국관구 재파견



1993년 캐나다 관구로 파견되어 26년 동안 양성, 교구청, 인디언들을 위한 후원활동 등 캐나다에서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살아오신 김은숙 리따 수녀님이 한국관구로 재파견되어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선교사로서 살아오신 삶에 함께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수녀님을 기쁜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함께 기도해요.

이선경 쟼마 자매님의 아드님 김정준 라우렌시오 부제님께서 내년 사제서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서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제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9월1일 ~ 9월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유희 구유희 구유희 구인순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토파니아 김남기 김덕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병수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성미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숙자만나 김순철 김시윤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임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옥립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정숙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정화 김종연 김주옥 김준희 김진미 김진선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옥 김철형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옥 김해자 김현숙(광주)
김혜겸 김호생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인준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
노봉근 노석심 노유리 노정애 당효준 류순자 명영희 문경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근 박성길 박성준 도미니꼬 박수경
박순옥 박승민 박양순 박연애 박용숙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찬순 박태분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희순 방진 배운숙 배인호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빛소금이티오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정례 송영희 송정애 송혜경 시화베드로성당
신승일 신재진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 오지연 우복명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
ENG 원선주 원세경 유미경 유명춘 유시연 유은분 유은정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유희숙프란치스코 육동배 윤경숙(제일) 윤군자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데보라 윤미숙파우스티나 윤봉수 윤순자 윤정희 윤한희 이갑수 이경희
이관훈 이광희 이귀순 이근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준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상문 이선경쩨마 이성엽 이성원바오로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실 이연재 이영란 이영애 이영자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유순 이윤신 이은수 이은정 이은주 이인동 이인숙 로사 이정란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종옥 이준우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이희량 인용석 인후작은형제 임금
임수남 임승옥 임지원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순 장영표 장원태 장은미
장현 재속프란치스코회야음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득근 정명국 정미영 정미희 정복순 정부강 정성민 정소영 정숙자 정승한
정영숙 정옥희 정일배 정재영 정진명 정향숙쩨마 정희파키스탄 조국제 조근미
조명숙 조상위 조정희 조혜영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진숙인 진신아 최금영
최두진 최미라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최연희 최영숙 최영애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인정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추수옥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